인 사 말

김 두 호
농촌진흥청 차장

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, 경제, 사회는 물론 국제관계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정도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사회적 거리두기, 재택근무 등으로 '비접촉 · 비대면' 마케팅이 급성장하면서 농산물 유통과 소비도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.

코로나 시대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이고 또 하나는 지역 농산물 생산-소비 활성화입니다. 지역 농산물의 생산-소비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사업이 바로 푸드플랜 정책입니다.

푸드플랜 정책은 생산-소비-안전-영양-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입니다. 이 푸드플랜 정책이 지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의 생산과 소비가 필수적입니다.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를 지원하고 농산물우수관리(GAP) 제도 확산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-유통-소비의 선순환 체계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.

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에 대비하여 IoT, AI 등 디지털 농업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연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존경하는 회원 여러분! 농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협업하고 소통해야 합니다. 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농촌진흥청, 식약처 등 식품 안전을 다루는 정부부처와 농식품을 생산하는 산업계,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학회인 만큼 각 분야의 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과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.

2022년 새해에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국민이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